

글라써(Glasser)의 선택이론에 근거한 대학생 커플의 다섯 가지 욕구강도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곽 소 현(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글라써(Glasser)의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욕구강도의 특성이 이성교제 중에 있는 대학생 커플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이성교제 대학생들의 욕구강도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커플 간의 다섯 가지 욕구강도 차이 및 커플 간의 다섯 가지 욕구강도 차이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커플 간의 다섯 가지 욕구강도 유사성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의 차이를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4개 대학교에서 현재 이성교제중인 대학생 남녀 200쌍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에서 욕구강도는 글라써(Glasser)의 선택이론에 근거한 우애령(1996)과 김혜영(2001)의 욕구척도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다섯 가지 욕구강도 하위척도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등간척도이다. 이성관계만족도는 Roach(1975)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를 Bowden(1977)이 재구성하고, 이인수와 유영주(1986)가 번안한 결혼만족도척도에서 9문항을 추출하여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하고,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등간척도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Cronbach's α , 대응표본 t검정,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반적인 이성교제 대학생들의 욕구강도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제기간($\beta=.16, p<.05$), 남자의 생존욕구($\beta=.19, p<.01$), 여자의 사랑과 소속욕구($\beta=.16, p<.05$), 여자의 힘욕구($\beta=-.18, p<.05$), 여자의 생존욕구($\beta=.13, p<.05$)가 남자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는 교제기간($\beta=.29, p<.001$), 여자의 사랑과 소속욕구($\beta=.19, p<.01$)만이 여자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커플 간의 다섯 가지 욕구강도 차이는, 사랑과 소속욕구($t=-3.01, p<.01$), 힘욕구($t=-2.93, p<.01$), 즐거움욕구($t=-2.13, p<.05$), 생존욕구($t=-1.90, p<.05$) 등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유욕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욕구강도의 평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커플 간의 다섯 가지 욕구강도 차이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제기간($\beta=.29, p<.001$), 자유욕구($\beta=.13, p<.05$), 생존욕구($\beta=.12, p<.05$) 강도의 차이가 커플의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 커플 간의 다섯 가지 욕구강도 유사성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커플 간 욕구강도의 차이가 많은 상보성 커플집단이 차이가 적은 유사성 커플집단보다 이성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2.39, p<.01$).

본 연구는 이성교제 대학생들의 욕구강도와 커플 간 욕구강도의 결합에 따라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이성교제 대학생들과 미혼남녀들이 서로의 욕구강도를 파악하여 보완해주며,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선택을 하는데 유용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건강하고 만족한 이성교제와 결혼준비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